

법정 장학생으로 다음 생에 더 좋은 공부 하렵니다



다행히 이창숙 박사(72)는 그 사건 뒤로 일을 가려서 했기 때문에 사찰을 덜 받았기에 자료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 “옛날에는 회람을 등사판에다 밀었잖아요. 74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2005년엔 이미 30년이 넘었잖아요. 한꺼번에 묶어서 책장에 넣어뒀던 걸 꺼내니까, 종이 바스락 바스락 하더라고요.”

2005년 한 해 동안 준비모임을 가지고 관계되었던 바깥사람들 회상에 노조 발기인들이야기와 사건 일지를 모아 책을 엮었다. “쓰기가 어렵더라고.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 일을 쓰면 되지.’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때 마음으로 쓰면 지금 마음이 아니고, 지금 마음으로 쓰면 그 때 그 마음이 또 얼어져요. 서른 몇 살 때 일어난 일을 육십이 넘어서 30년도 지난 일을 쓰는데 무슨 열이 나겠어요. 지금 마음자리에서 보면 지난 느낌이 거짓말이 되고, 그때 심정을 살리면 지금이 너무 우습잖아요. 절충점을 찾는 일이 힘들더군요. 그래서 ‘정직하게 쓰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태어난 <1974년 겨울-유신치하 한국일보 기자노조 투쟁사> (출판

사 미디어업) 출판기념회를 12월 12일에 가졌다. 노조지부장을 맡았던 이 박사가 인사말을 했다. “...모순을 고쳐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겐 설사 달갈로 바위 깨듯이 어리석은 시도일지라도, 하지 않을 수 없이 밀어내는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합니다. ...저는 이미 그 시대 일과 화해를 했습니다. 다 소화되어서 찌꺼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

그 때 마음은 지금 마음이 아니고

지금 마음은 그 때 마음이 아니다

개인 화해가 어찌되었든 우리가 했던 일이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 언론 투쟁을 말하지 않고, 오늘날 언론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놓는 이 책은 모자라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책장에 그냥 꽂아놓지 마시고, 읽어주시시오.”

“불일암이 거의 마무리되어갈 때, 친구랑 같이 가서 청소를 해 드렸어요. 마루도 닦고 창도 닦고 그랬

더니 구산 스님이 올라와서 보시고는, 보살들이 청소를 한다고 애쓰는 모습이 참 가깝하다면서 이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좋은 공부를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 끝에 법정 스님이 그러셨어요. 다음 생이 반드시 몸을 바꾸는 다음 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짜 그 공덕으로 불교공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법정 스님이 불일암을 짓고 내려가면서 봉은사 다래현은 성철 스님 상좌 원정 스님이 잠깐 살다 해인사로 떠나고, 돈연 스님이 썼다. 이창숙 박사 일행은 법정 스님이 안 계셔도 봉은사 다래현을 고향처럼 찾다보니 자연스레 원정 스님이나 돈연 스님을 알게 되었다. 그 뒤 해인사에서 우연히 이창숙 박사를 만난 원정 스님은 노장님을 비러가자고 했다. 노장님은 백년암에 계시는 성철 스님을 가리키는 말씀. 그때 성철 스님은 “여기 삼천배해야 들어오는데 나는 외상으로 왔대임.”하며 말씀을 꺼냈다. 그 말씀에 이창숙 박사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네 알아요. 제가 외상 같을게요. 스님.”하고 말을 받았다. “성철 스님이 ‘그래 같아라.’ 그러시면서 ‘나는 절에 왜 다니노?’ 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절하라 다니죠?’ 그러니까 ‘나는 아는구나.’ 그러더니 ‘몇 번 하노?’ 그러세요. ‘세 번 하죠.’ 그랬더니 또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와, 세 번 하노? 한 번이면 되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 왜 세 번을 하지?’ 싶었어요. 거기서 딱 막히더라고. 한 방 맞았죠.” 1·2차 관문은 통과했는데 마지막 관문에서 막혀버렸다. 이창숙 박사, 백년암에서 내

다음 생이란 꼭 몸 바꾸는

다음 생을 뜻하지 않는다

려으면서 절에 다닌다고 머물거다가 세월 다보내고, 육칠십 되었을 때 한 방 맞았으면 어쩌겠나. 지금 서른 몇 살에 맞는 게 너무 다행이다 싶었다.

“법정 스님은 제게 무슨 기도를 하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성철 스님을 뵈면서 삼천 배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전에 법정 스님이 간절함이 담기지 않은 절은 그저 ‘굴신운동’ 일

뿐이라는 글을, 아마 불교신문에 쓰셨을 거예요. 그 글을 보고 성철 스님을 따르는 스님들이 법정 스님 방으로 몰려가 스님이 아끼던 백제와당을 박살냈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원정 스님이 저를 법정 스님한테 다니는 신도라고 소개시켰어요. 그러자 성철 스님이 대뜸 ‘그래, 법정이가 직필 直筆이제!’ 하셨어요.” 직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쪽처럼 울곧은 글을 쓴다는 말씀이다.

이창숙 박사, 그 뒤에 인연 따라 석남사엘 가서 삼천 배를 했다.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을 뵈었는데 스님이, ‘얘기 들었다. 석남사 가서 절했답서?’ 그래서 ‘네, 스님 빛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불경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니 공부 끝나고 마, 포교사해라.’ 그러셨어요. 그 자리에서 불명을 주셨어요. 일화선一化船이라고. 반야선般若船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세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쓰지도 못했어요. 83년에 받았으니까 한 30년 되어 가는데, 그 불명을 쓴 지는 겨우 10년 밖에 안돼요. 정말 제대로 들어갔다는 느낌, 제대로 선생님들을 만났다는 생각이예요. 스님 다비식에 꼭 두 번 갔는데 한 번은 성철 스님 다비 때고, 이번에 법정 스님 다비 때 갔어요.” 무슨 인연이었을까? 시대를 아올랐던 두 어른을 한꺼번에 모시는 복이구나.

이창숙 박사는 마흔 두 살에 불교공부를 시작했다. 늦깎이. 한국불교사를 하는 김용태 선생이 지도 교수였다. 김용태 교수는 신라 때 받아들인 승만경이 아직도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면서 여성 불자가 논문을 써서 널리 알려야 한다고 해보라고 권했다. “김용태 선생님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목이 <승만경의 사상과 그 新羅的 受容에 대한 研究, 1983>이었어요. 그런데 쓰는 사람은 힘들고, 보는 사람은 시시한 게 석사 논문이예요.” 논문에서 “...신라왕실에 바쳐진 승만경勝曼經 주인공 승만부인은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승만부인이 갖추고 있는 도덕성과 타고난 재주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기도 하다. 남성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여왕을 내세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선덕여왕 재위 15년 동안 정법왕 국사상과 보살다운 덕치德治, 불교신앙을 엿볼 수 있다. 정법왕국사상은 불교에 바탕을 둔 국가관으로 불도 불법 근본정신에 따른 치국치민治國治民으로 삼는 왕국, 곧 국가가 정법왕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법 실현은 승만경 중심 사상이다.” 석사 학위를 받은 이창숙 박사는 이어 박사학위에 도전한다는 소식을 법정 스님께 드렸다. 다음은 법정 스님 답장이다.

참 오랜만에 눈에 익은 글발 받아봅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애 많이 썼습니다. 박사과정 등록하셨다니 잘했습니다. 유강이가 벌써 교교이군요. 불일佛日에 와서 고추장 먹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가을이 오면 늘 그러듯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지난여름 땀 좀 흘렸더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요즘은 끓여 먹기도 귀찮고 혼자 먹는 밥맛도 없어 자주 나돌아 다닙니다. 설령설령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어디든지 훌쩍 떠나고 싶어요. 내일來日은 또 길을 나서려고

佛經의 眞髓, 깨닫는 法을 일러준 「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의 바른 해설!!

반야심경의 올바른 해설

● 金台龍 해설



金台龍 해설, 知文社 刊, 값 10,000원

지금까지 불교계의 애매모호한 해설의 오류를 밝혀, 정확히 뜻을 헤아려 새길 수 있게 한, 혁명적인 해설본 출간!!

지문사 02)715-2305, FAX 718-9387

총판 · 한국출판협동조합 전화 070-7119-1750, 팩스 031)944-8240



월암스님과 함께하는

제3기 '유식' 대강좌

대한불교조계종 군포 법해사에서는 매년 참선실참 수행 방편으로 선학강좌를 개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기에는 문경 한산사 월암스님을 모시고 마음바탕과 작용의 법계 유심 만법유식의 대의인 '유식' 강좌를 봉행합니다.



'일체가 다 마음에서 난다'는 큰 주제를 가지고 화엄 법해에서 번뇌가 곧 보리인 용맹정진하는 거룩한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6월 18일 오후 3시 개강, 매월 셋째주 (토) 오후 3시
- 장 소 : 군포시 당동 법해사 4층 교육강당
- 연락처 : (031)394-7253, 397-7253

많은 동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법해사



합니다. 어찌부터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감의 불도 많이 불어졌어요. 불일佛日에 온지 꼬박 아홉해가 됐습니다. 세월 참 잘도 지나갑니다. ……승만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잘 읽히지 않은 경전인데 석사 논문으로 잘 다루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금광명경金光明經과 함께 널리 독송되는 경전인데요.

부디 건강하시고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면서 즐겁게 사십시오.

시월 사일十月 四日 불일암佛日庵에서 합장수합
“이른바 가방 끈이 긴 스님들에게 여성신도들이 무었을 여쭙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

여자들이 공부해봐야 다음 생에

남자 몸 받는 일밖에 더 있을까?

어떤 스님들은 망상피우지 말라고 해요. 알고 싶은 욕구가 망상이라는데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또 여자들이 공부해봐야 다음 생에 남자 몸 받는 일밖에 더 있어? 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럼 여자는 뭐야? 여성 불자는 돈이나 내는 존재야? 한국 불교가 여성신도 없으면 존재할 수 있어? 부처님이 그런 분이야? 부처님이 그런 사람이라면 난 부처님 안 믿어. 평등 사상이 뭐야?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연구를 제대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조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같은 중요한 경전에 나온 여성성불상 사상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연구했어요. 박사 논문을 쓸 때 해주 스님이 많이 챙겨주셨어요. 박사 논문을 쓴 다음에 동대에 '불교와 여성'이라는 교양과목이 생겨서 강의를 했어요.” 불교여성개발원 자문위원으로 여태 현역인 이창숙 박사 말씀이다. 박사 논문 제목은 <인도불교의 女性成佛思想에 대한 연구, 1989>이다. 누군가 첫발을 내딛어야 길이 열린다.



얼굴은 어쩌면 스스로 만든 '훈장'이다. 굴곡이 적지 않았던 삶 속에서 만든 이박사의 '훈장'은 사진장미를 편안하게 한다. 돌아간 사진장이 어머니와 같은 연세인 그를 일부러 영가등 앞에 앉혔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박사의 생사관은 어떻게 하는 공금중 때문이었다. 담담한 대답이 놀라웠다. '영가등을 보고 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삶과 죽음은 자연스런 돌바꿈 일본이란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었다. 필사 그것은 손색없는 훈장을 갖는데 일조 했을 것이다.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불교신문 김성우 기자는 2008년 9월 6일자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에서 <법구경 주석서>에 나오는 수다원과 이상 도과道果를 얻은 성자 1만 2975명 가운데 신분이 확실한 5787명만을 분석하며 비구니와 우바이를 합친 여성 성자가 3544명(61.2%)으로 비구와 우바새를 합친 남성 2243명(38.8%)보다 1,300여명이나 많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여성불자 활동이 현재 한국 여성불자 활약보다 더 활발했음은 물론, 여성성불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여성성성불 같은 이론이 널리 퍼진 까닭은 수탁 콤플렉스 때문이 아닐까.

오랫동안 법정 스님을 뵈다보니 스님이 뭘 좋아 하는지를 훤히 꿰고 있던 이창숙 박사는 일본 여행길 면세점에서 배터리로 쓰는 '레터오프너'를 사들고 돌아와 그 해 여름, 딸과 불일암을 찾았다. "봉투 부리에 레터오프너를 넣어 살짝 밀면 짜~의 갈라져요. '스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다.' 싶어서 두 개를 샀어요. 하나는 제가 갖고 하나 스님께 드렸더니 '이런

게 있어?' 그러시면서 한 번 씩 해보시고는 무심히 받아 내려놓으셨어요. 불일암에 가면 잠은 아래 요사체에 가서 자는데 그날 밤은 다실에서 자라고 그러셨어요. 차를 들면서 한참 얘기하다가 스님은 큰 방으로 건너가시고, 자려고 누웠는데 옆방에서 치~익, 치~익 소리가 나오. 레터오프너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소리에요. 그 소리가 계속 나는 거야. 우리가 리 깔길때면서 '스님이 아까는 무심한 척 하시더니 너무 재미있어서 자주 하시는 거야. 우리가 다 듣고 웃는지도 모르시고.' 그랬어요. 스님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가셨어요. 참, 사랑 많이 받고 가셨어. 아! 참, 그 말씀도 드려야지, 석사하고 박사과정 공부할 때 법정 스님이 수업료를 한 차례씩 두 번 내주셨어요." 법정 장학생 이창숙 박사와 만나고 돌아서는 나그네 발걸음이 가벼웠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살았느냐



'사람에게 아주 작은 도움도 주지 못할 정도로 쓸모없는 책은 세상에 한 권도 없다'는 말이 있다. 이 소중한 책을 읽다 보면 중요한 부분이 그냥 묻히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기에 글을 쓰고 적바림을 해 둔다. 나중에 참고하기 위함이다.

고전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일생 하늘을 이고 다니면서도 하늘의 높이를 모르고, 땅을 밟고 다니면서도 땅의 깊이를 모른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말을 무색하게 한 자연과학자가 있다. "하늘은 얼마나 높을까"라고 천문학자 이석영은 명제를 던지고 있다. 하늘의 높이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한다. 구름이 동동 떠다니는 곳이지만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그 높이는 고작 10킬로미터에 지나지 않는다. 햇빛이 산란돼 파랗게 보이는 곳이 하늘이라면 높이는 100킬로미터에 이른다. 별이 반짝이는 곳까지를 하늘이라고 하면 9500킬로미터까지이고, 별과 별 사이의 까맣게 보이는 허공까지가 하늘이라면 그 높이는 자그마치 137억 광년이나 된

운', '살살한'의 뜻이 있고 '찬물'이란 뜻도 있다. vana는 '숲', '덤불'을 뜻한다. 한역(漢譯)으로는 한림(寒林)이라고 표기한다. 인도인의 평생 소원 가운데 하나는 캔지스강에서 임종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강의 찬물에 육신을 부러 놓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덩불이나 숲속에 영면하는 것이다. 불교의식에서의 시다림과 시다림의 어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신삭(新削) 시절에 품었던 의구심 가운데 인도의 말이 중국에서 번역될 때 정확도가 얼마나 될까 찍이나 궁금했었다.

<벽암록>을 더 살펴보자. 어느 날 점원이 가래를 들고 법당 위에 올라가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했다. 석상 선사가 "뭐하는 것이야?"라고 물으니 "돌아가신 스님의 사리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점원이 대답했다. 석상 선사가 "은 천지가 스님의 사리로 가득 차는데 어떤 사리를 또 찾는단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필자의 신간 <한국을 빛낸 선사들>을 읽고 한 언론사에서 찾아 왔다. "요사이 선수행자는

하늘 높이 보는 마음따라 다르듯

세상만물 확 펴봐야 제대로 보인다

다고 한다. 불교에서 광대한 허공을 akāśa라고 한다. 그리고 하늘의 높이는 지금도 매일매일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벽암록> 제55칙의 내용이다. 도오(道悟) 선사가 점원(漸源)을 데리고 상가에 문상을 갔다. 점원이 상가에 들어가더니 관을 두들기며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라고 물었다. 도오 선사는 "죽었다고도 못하고 살았다고도 못한다"고 대답했다. 돌아오는 길에 점원이 말했다. "스님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말씀해 주지 않으면 스님을 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도오 선사가 "치고 싶으면 쳐도 좋지만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는 문제는 말할 거라곤 없다"고 대답하니 점원이 한 대 쳤다. 도오 선사가 열반한 후 점원은 석상(石霜) 선사를 찾아갔다. 그리고는 이전 이야기를 꺼냈다. 그랬더니 석상 선사가 "살았다고도 못하고 죽었다고도 못한다"고 말했다. 점원이 "어찌서 못합니까?"라고 물으니 석상 선사는 "못하지, 못해"라고 대답했다. 그 말 끝에 점원은 당장 깨우침을 얻었다.

상가(喪家)에 문상을 갔다고 했는데 시다림을 간 것이다. 시다림의 어원을 보자. Sita-vana를 음역해 시타림(屍庵林)이 됐다. Sita는 '주

많은데 활안종사는 없다고 하는데..."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사는 지전(至賤)인데 알아지지 못할 뿐이다"라고 답했다. 마치 돼지의 눈에는 돼지 같이 보이고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만 보인다고 동(弄)을 나는 무학 스님과 이태조의 얘기를 곁들이기도 했다.

꽃은 아름답다. 근심과 수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꽃이라고 아름답게 보일 리 없다. 감미로운 선율도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나의 마음을 옥양목(玉洋木)을 펼쳐 놓듯이 확 펴 놓았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고 들리는 것이다.

학문의 세계는 항상 구분을 짓는다. 가령 그 피부색에 따라 백인·흑인·황색인의 셋으로 나눌 때에는 피부색이 구분원리이다. 그러나 선의 세계는 구분짓기를 꺼린다.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는 것이다. 흑자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말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똑같은 사물도 보는 사람의 용량에 따라 천차만별이듯이 진리의 세계는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단정하는 순간 언어의 노예가 되고 그 울을 벗어나지 못해 구속이 된다.

아마 지금도 천문학자는 망원경을 보며 하늘의 높이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그 끝없는 여정을...

동국대 석학과 교수

약사여래불의 가피로 몸을 살린다

약사여래불 치유도량 활인사



덕운 큰스님은 질병치유의 중생구제에 영험하신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를 입었습니다.

수십년간 육신고통으로 고생하는 불자위해 기도끝에 선통하신

“활인 발효방”!

한약재를 첨가한 순수발효열 65℃로 체내독소배출! 건강증진! 면역강화! 질병예방!

활인 발효방 무료체험권

*1회 무료체험가능 (단, 체험권지정, 사전예약에 한함)

사당역 11번출구 활인사 02)3487-2311

머리감은 유행 한방비누, 활피모

- 10주년을 맞이하여, 특가세일 (6월~8월까지 3개월간)
- 스님께서 수년동안 연구 개발하고, 병장외 의과대학사(여한약사회장, 경희대외과교수)가 추천하는 전통방범으로 만든 유행특수 비누입니다.

머리카락, 튼튼하게 모근! 청결하게 두피! 건강하게 탁모관리! 기본.

- 특징 : 유행이 들어간 천연비누, 무방부제, 무자극, 무색소, 고급비누원료 사용 톱크린징 대응, 건강피부 유지, 애원전 탈발세제거
- 가격 : 특별할인가 2만원 (정가3만원) / 판매원 : 활인사

평생부자지갑 다라니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사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려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가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불연법을 중요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북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급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개) 전화: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종고 불경 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배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 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구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 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첫 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구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풀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를 왕 및 사업변장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나

로 제작되어있어 풀이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개) 전화: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신년, 가년, 임원전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대음식,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당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마곡점, 방앗간, 공점, 주유소, 신세교,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